

금호타이어 300여명 이어 삼성전자 500명 이동설 연구인력 脫光州 '비상'

지역 R&D 역량 저하...단순 생산기지화 우려

광주지역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인력 수백명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연구인력을 경기도 등지의 연구소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연구 역량 저하와 함께 단순 생산기지화 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지역 가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말부터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개발 인력 500여명에 대해 이동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이다. 이 가운데 냉장고 관련 200여명의 연구인력과 청소기 관련 100여명, 개발품질관리 200여명 등이 수원 연구소로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발인력 이전설이 현실화되면 공장 내 정규직 4000여명 중 13% 가량의 500여명이 광주를 떠나 수원 연구소로 가게 된다. 압축기(컴

프레서) 인력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수원사업장 내에 삼성전자연구소(R5)와 삼성부품소재연구소를 올 6월과 8월 건립 예정에 있어 광주공장 연구인력 이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연구인력 이전과 관련, 업계에서 많은 설들이 나왔지만 사실 무근이다"며 "인력 이전은 사람 뿐만 아니라 고가의 연구시설과 장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당장 실행되기 힘들고 여러가지 제반사항들과 겹쳐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빠르며 올 하반기쯤 광주공장 내에 있는 중앙연구소를 그를 인제개발원이 있는 경기 용인으로 완전 이전시킬 계획이다. 2300여명이 근무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연구개발인력은 370여명 규모로, 이전 시 일부는 남지만 대부분의 연구인력은 용인에 재배치된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는 타이어 개발은 물론 자재와 디자인 연구 등 회사 내의 실질적 '브레인'이다. 이전 배경은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지역 특성상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 인력양성이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분야 연구소 간 제휴 업무 등이 있어 연구기관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당장 광주 연구소가 문을 닫진 않겠지만 연내 용인 이전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광주가 대기업의 단순 생산 기지로 전락하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역 산단의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연구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지역에 생산만 담당하는 '엠펙터 공장'만 남기는 것"이라며 "국내 생산공장 해외 이전 분위기가 거센 상황에서 차후 생산라인 이전과 물량감소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조기 품어 위판장 황금 물결

16일 새벽 5시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나무상자를 가득 채운 조기들이 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다. 이날 경매에서는 1350마리들이 조기 1상자가 25만원에 낙찰됐다. 이달 초 새해 첫 출어에 나선 목포의 한 어선이 3억7000만원어치를 잡는 등 남해안 조기 어장이 풍어를 이루고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벼랑끝 민주당

총 광주·전남 정치권

분열·반목·기득권 안주... 끝없는 추락

지역민심 외면 줄서기·눈치보기 악순환

벼랑 끝에 몰린 민주당의 현주소는 정치적 무기력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정치권의 현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 모두, 시대적 흐름을 통찰하지 못하고 정치적 기득권에만 연연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특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실 정치 은퇴 이후, 지역 정치권은 과감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정치력을 키우기 보다는 분열과 반목, 정치적 안주 등으로 스스로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광주·전남지역 중진 국회의원들은 4선의 이낙연, 김성곤 의원과 3선의 박지연, 박주선, 강기정, 김동철, 주승

용, 유우근 의원 등 8명이나 된다.

하지만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한 의원들은 1~2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주류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대부분 스스로 정치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주류 측에 줄 서기를 하거나 비주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도부나 대선주자 비서실장 등을 매개로 주류 측에 편입, 지방선거 등에서 '완장'을 차거나 정치적 기득권 확보에 만족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의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의 위기 국면에서 과감한 정치적 도전으로 리더십을 확보하기 보다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

체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진 의원으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는 새로운 '탈출구'이자 개인적 인영화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적 존재감이 있는 초계선 의원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중진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줄 서기를 하거나 비주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주류에 줄 서기를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각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은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에서 과감한 정치적 도전으로 리더십을 확보하기 보다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

지역 민심과 지역 정치권의 신뢰가 붕괴되면서 총선 때 마다 '물감아' 여론이 형성되는 등 악순환이 거듭, 지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을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위기 극복의 첫 단추는 지역 민심과의 신뢰 회복에 달려있는 지적이다.

지역 민심의 정치적 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대정신을 토대로 치열한 도전과 응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 이후, 여성이자 초선인 박혜자 의원이 1천배로 사죄한 것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표하지 않은 것이 지역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우선, 중진 의원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로호 이달 30일 3차 발사 유압모터 제어기·전원분배기 교체

나로호(KSLV-1)의 세 번째 도전 날짜가 오는 30일로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오전 '나로호 3차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발사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월30일에서 2월8일 사이에 나로호 3차 발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에정일은 30일이며 발사 시각은 오후 3시55분~7시30분 사이로 기상상황, 우주환경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가능성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발사 당일 오후 1시30분께 공개될 예정이다.

황우연 관계자는 "지난주 나로호 상단부를 재조립해 위성이 장착된 상태로 발사조립동에서 2단과 1단을 30

cm 정도 근접시켜 놓은 상황"이라며 "18일 1, 2단을 결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러 양국 연구진의 검토 결과 지난 발사시 문제가 된 나로호 2단 추력방향제어기(TVC) 전자박스는 TVC를 구동하는 유압모터 제어기의 합선으로 과다 전류가 흐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압모터 제어기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했으며, TVC 내부에 고장 요인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나로호 상단의 전원분배장치(PDU)를 전체적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교체된 부품은 나로호 2단에 장착된 후 자체 기능시험과 상단부 종합 성능시험을 거친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교과부 측은 설명했다.

나로호는 고흡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전기계통 점검과 예행연습을 수행한 후 28일 발사대로 이동해 30일 발사될 예정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3년 2월 7일(목)

입학문의 062)605-1112
문의 062)605-1023

3일 후, 기대하세요! 피부 좋아졌다는 말!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바이오인자로 구성된 Bio-redox™ 성분으로
3일만 사용해도 피부 좋아졌다는 칭찬을 듣게 해드립니다

아이오페 연구진은 25일간 빛, 온도, 물, 공기를 제어하는 바이오 인큐베이팅 기술을 통해 항산화효소 배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피부 친화적인 바이오성분인 Bio-redox™가 바이오 에센스 한 병에 93.7% 함유되어 피부상태를 빠른 속도로 개선시켜줍니다.

3일 만에 느껴지는 투명하고 매끄러운 피부

피부 컨디션 개선에 만족한다	90%
피부 매끄러움에 만족한다	90%
피부 윤기가 증가함을 느낀다	90%
피부 보습력에 만족한다	90%

바이오 에센스 임상실험자 대상 3일 후 만족도 조사 결과
2012.4.9~2012.4.30 생년여성 20명 대상 / 조사기관: (주)아이오페

NEW
바이오 에센스
IOPE

3일 후 피부상태를 보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찍어보세요!